'2018~202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검거 현황'을 보면,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초·중·고 학생과 청소년은 총 1만4432명.

교육부가 지난해 9월6일 발표한 '2022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321만명 중 1.7%인 5만3800명이 학교폭력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조사 결과(1.6%)보다 높음.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 혐의로 구속된 학생과 청소년은 65명(0.5%)으로 집계됐다. 5796명(40.2%)이 불구속 조치됐고 2368명(16.4%)은 소년부에 송치됐다. 나머지는 즉심, 훈방 조치됐거나 내사 종결 등 조치를 받았다.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10_0002261156&cID=10205&pID=10200>

13일 종로학원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운영하는 초·중·고 정보공시 플랫폼 '학교알리미' 2020~202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서울 지역 고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두 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지난 3년간 서울 389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총 4700건으로 같은 기간 320개 고등학교(2112건) 대비 2.2배 더 많았다.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13_0002265944&cID=10205&pID=10200>

피해자들의 끝이 없는 피해

‘더글로리’와 같은 학폭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지만 피해자들의 사적 복수는 드라마 속 비현실에 불과하다. 피해자 회복의 지원 필요.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1150800004?input=1195m>

 학교폭력 피해자와 관련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진심 어리고 진정한' 사과만이 치료법이라고 한목소리를 낸다.

징계·처벌을 강화하는 정책 못지않게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피해자를 돌보는 게 최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필요하지만 엄벌주의가 만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폭 사건이 징계로 마무리된다는 인식 탓에 사건을 종결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징계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의 치유는 뒷전이 되기 십상이다. 서류로 오가는 징계 절차 속에서 피해자는 잊힌다.

처벌의 궁극적 목적은 사건 종결이 아니라 '재발 방지'인데도 처벌의 수위가 강해질수록 역효과가 커지는 현실도 살펴볼 문제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4052600004?input=1195m>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공격성이 높아지고, 또래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은희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2017년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와 또래폭력 가해와의 관계’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진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를 토대로 충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 169명의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신체적 위협이나 욕설, 방임 등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은 학교 밖 청소년의 불안, 공격성, 또래폭력 가해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진은 “부모의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방식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42309054093259>

‘방과후에도 피할 곳 없는 '기숙사 학교폭력' 5년간 1천100여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최근 5년간 1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학교는 방과 후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철저한 분리 조치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이 교육부에서 받은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 자료를 보면 2017∼2021학년도 심의건수는 모두 1천110건에 달했다. 피해학생은 1천781명, 가해학생은 1천805명이었다.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7학년도 188건, 2018학년도 246건, 2019학년도 258건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졌던 2020학년도 10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원격·대면수업을 병행했던 2021학년도에는 311건으로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학년도 기록을 넘어섰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의 경우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해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 학교와 달리 피해학생이 방과 후에도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데다 피해학생이 보호자와 떨어져 지내고 있어 심리적 안정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사건에서도 피해학생은 교실에서뿐 방과 후 기숙사나 식당 등 학교 곳곳에서 언어폭력을 겪는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4137400530?input=1195m>